

## 간호대학생의 창의성, 공감역량, 셀프리더십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승희<sup>1</sup>, 김정순<sup>2</sup>

<sup>1</sup>단국대학교 간호대학 강의전담조교수, <sup>2</sup>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reativity, Compassionate Competence, Self-Leadership upon Problem-solving Ability

Seung-Hee Lee<sup>1</sup> and Jeong-Soon Kim<sup>2</sup>

<sup>1</sup>Non-tenure Track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Dankook University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Health University

<sup>1</sup>Corresponding author: [jskim@ghu.ac.kr](mailto:jskim@ghu.ac.kr)

Received December 1, 2020; Accepted December 16, 2020

### ABSTRACT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창의성, 공감역량, 셀프리더십 및 문제해결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창의성, 공감역량, 셀프리더십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G광역시 일개 대학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 총 127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에 자가보고형 설문 조사를 통해 자료수집 하였으며, SPSS 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 문제해결능력은  $3.76 \pm 0.58$ 점이었으며, 창의성( $r=.50, p<.001$ ), 공감역량( $r=.70, p<.001$ ), 셀프리더십( $r=.79, p<.001$ )이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셀프리더십( $\beta=.52, p<.001$ ), 공감역량( $\beta=.33, p<.001$ ), 창의성( $\beta=.15, p<.001$ )의 순으로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회귀모형이 70.0%의 설명력을 가졌다.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셀프리더십, 공감역량,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학제적 간호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reativity, compassionate competency, self-leadership and problem-solving ability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is study population consisted of 127 students in the 4th grade of nursing at one university in G metropolitan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at september 2020 and analyzed using t-test, ANOVA, Mann-Whitney U test, Kruskal wailli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WIN 22.0 program. The results, the mean score of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was  $3.76 \pm 0.58$ , problem-solving ability explained 70.0% of the variance in self-leadership( $\beta=.52, p<.001$ ), compassionate competency( $\beta=.33, p<.001$ ), and creativity( $\beta=.15, p<.001$ ) in order. The results of our research suggest that self-leadership is most important variable influencing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refore, to promote problem-solving ability in clinical situation, must to develop multidisciplinary nursing education program that can improve self-leadership, compassionate competency, and creativity.

**Keywords:** Problem-solving ability, Creativity, Compassionate competency, Self-leadership, Nursing students



## 1. 서론

### 1.1 필요성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과 같은 보건 관련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보건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교육현장에서도 실무중심의 통합교육과정 실현을 목표로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sup>1)</sup>.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실현은 지식을 ‘무엇을 아는가’로 정의되었던 과거의 관점보다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의 시대변화적 관점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sup>2)</sup>. 이러한 지식의 효율성이 강조됨에 따라 간호교육에서도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능력, 리더십, 공감, 의사소통 및 협력 등의 핵심간호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완성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sup>3)</sup>.

문제해결능력은 현재시점의 상태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상태의 차이와 간격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적 및 창의적 능력<sup>4)</sup>으로, 간호사가 임상현장에서 만나는 대상자의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sup>5)</sup>. 특히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경험하게 될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국내 선행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비판적 사고, 공감능력,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창의성,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7)</sup>.

창의성은 새롭고 유용한 산물을 산출하는 능력으로 생존능력, 성장 발전을 지속시키는 동기 또는 문제해결능력으로 정의되며<sup>8)</sup> 21세기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대표적인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다<sup>9)</sup>. 보통의 문제해결능력은 직관 및 상상력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해결과 창의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sup>10)</sup>, 국내 선행연구결과에서도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은 양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sup>6,11)</sup>.

공감은 현대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핵심적 요소로, 인간관계의 핵심이 되는 삶의 기술이다<sup>12)</sup>. 즉, 공감은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며, 사회적 상호작용 및 적응과 관련된 인간의 기본적인 특징이다<sup>13)</sup>. 다보스 세계경제포럼(2016)에서 2020년에 요구되는 10대 핵심역량 중 하나로 꼽힌 공감역량은 간호사가 환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내적 자질임과 동시에 간호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기도 하다<sup>14)</sup>. 국내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공감능력은 의사소통능력, 정서조절, 자아탄력성, 대인관계 등에 영향을 받아 변하는 특성을 가지며,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변화시키는 주요변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sup>7,15-17)</sup>.

셀프리더십은 자기 삶의 자발적 리더로서 자기주도성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리더십으로<sup>18)</sup>,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동성에 기초하여<sup>19)</sup>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성과를 창출해내어 결국은 자신을 바랍직한 변화로 유도하는 사고 및 행동전략을 말한다<sup>20)</sup>. 셀프리더십은 간호 실무에서도 업무성과, 직무만족, 업무수행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적 핵심역량으로<sup>21,22)</sup>, 국내 간호현장에서 대학교육과정을 통하여 개발해주시기를 바라는 간호사의 핵심역량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sup>18)</sup>.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셀프리더십을 핵심역량으로 선정하여 간호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함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즉,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주체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간호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창의성, 공감역량 및 셀프리더십이 중요한 변수가 됨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나 국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연구를 고찰해보면 비판적 사고력을 중심으로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다수이며<sup>6,7)</sup>, 창의성, 공감역량, 셀프리더십과의 상관성 및 영향정도를 직접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요구되는 간호의 핵심 역량도 변경되는 이 시점에 21세기 핵심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는 창의성, 공감역량,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능력 간의 인과관계를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함양해야 할 핵심 역량 중 창의성, 공감역량, 셀프리더십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 궁극적으로는 미래 임상간호현장의 주역이 될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문제해결과정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차이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창의성, 공감역량, 셀프리더십 및 문제해결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창의성, 공감역량, 셀프리더십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창의성, 공감역량, 셀프리더십 및 문제해결능력의 정도와 관련성을 확인하고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국내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며, 근접 모집단은 G광역시 소재의 일개 간호학과의 4학년 재학생으로 편의표출법으로 통해 모집하였다. G\*Power3.1.9.2 프로그램에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예측요인 11개로 지정하여 산출한 최소 대상자 수는 123명이었다. 이에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135명에게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수집과정에서 설문거부의사를 표시한 2명과 부적절한 답변 6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27명이 참여하였다.

### 2.3 연구 도구

#### 1) 문제해결능력

이우숙 외<sup>[23]</sup>가 개발한 PSP(Problem solving process)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이행과정능력을 평가하며, 문제명료화, 해결방안탐색, 의사결정, 해결방안수행, 평가 및 반영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0문항의 자가보고 형 5점 Likert 척도로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하며,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

#### 2) 창의성

Runco, Plucker, Rim(2001)이 개발하고 이문숙과 이효희<sup>[24]</sup>가 번안한 RIBS (Runco's ideational behavior scales)를 사용하였다. 이는 아이디어 사용과 평가, 생성기술과 같은 발상과 관련된 창의적 행동을 측정하며, 총 17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 3) 공감역량

이영진<sup>[25]</sup>이 개발한 CCS(Compassionate competence scale)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대상자를 이해하고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데 필요한 간호사의 기술 및 능력을 측정하며, 소통성, 민감성, 통찰력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 4) 셀프리더십

Manz, C. C.<sup>[19]</sup>가 개발한 설문지를 기초로 김한성<sup>[26]</sup>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 기대, 리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 등 6개 요인으로 각 요인별 3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한성<sup>[26]</sup>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2020년 9월 21일에서 28일까지 수집하였으며,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하는 대상자에게 온라인설문 참여방법을 설명한 후 정해진 기간동안 개별적으로 온라인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온라인설문을 시작할 때 첫 질문에 연구에 대한 목적, 방법, 소요시간 등을 소개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유무를 먼저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동의를 선택하면 다음 설문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설문내용은 창의성, 공감역량, 셀프리더십 및 문제해결능력, 전공만족도, 입학동기 등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이 포함되었으며, 설문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는 설문 응답에 대한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22.0 version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상적 창의성, 공감역량, 셀프리더십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ANOVA와 t-test, Mann-Whitney U test, Kruskal walli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N>30은 모수 검정을, N<10은 비모수 검정을 하였으며 10≤N≤30은 Shapiro-wilk test를 이용, 종속변수의 정규성을 검정한 결과 입학동기를 제외한 성별, 결혼에서 통계량 .92~ .98, p = .130~ .422으로 모두 정규 분포하여 모수 검정을 하였다).

셋째,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일상적 창의성, 공감역량, 셀프리더십이 문제해결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적합성을 검정하기 위해 잔차의 정규분포와 등분산성, 그리고 다중공선성을 분석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았다. 나이는 평균 26.4세(±6.5)이며, 성별은 여자가 86.6%, 남자가 13.4%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89.0%였으며, 종교는 없음이 71.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거주상태는 본가에서 통학하는 경우가 61.4%로 가장 높았다. 간호학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93.7%로 높게 나타났으며, 입학 동기는 취업이 용이함 44.9%로 가장 높았고, 적성 및 흥미 30.7%, 주변의 권유 15.7%, 고교 성적 고려 8.7%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difference of problem solving ability (N=127)

일반적 특성		n(%) M±SD	문제해결능력		
			M±SD	F or t/ x 2	p
나이		26.4±6.48			
성별	여	110(86.6)	3.8±0.59	-.24	.810
	남	17(13.4)	3.7±0.50		
결혼	미혼	113(89.0)	3.8±0.57	2.21	.029*
	기혼	14(11.0)	3.4±0.49		
종교	유	36(28.3)	3.7±0.58	-.47	.638
	무	91(71.7)	3.8±0.58		
주거상태 <sup>†</sup>	본가에서 통학	78(61.4)	3.7±0.59	2.30	.513
	혼자자취	35(27.6)	3.7±0.53		
	지인과 자취	7(5.5)	4.1±0.76		
	기숙사	7(5.5)	3.7±0.28		
간호학 전공만족도 <sup>‡</sup>	만족	119(93.7)	3.8±0.55	-2.04	.042*
	불만족	8(6.3)	3.3±0.74		
입학동기 <sup>‡</sup>	고교성적 고려	11(8.7)	3.4±0.55	4.04	.257
	취업이 용이	57(44.9)	3.8±0.60		
	적성과 흥미	39(30.7)	3.8±0.56		
	주변의 권유	20(15.7)	3.8±0.52		

\*p<.05, <sup>†</sup>Mann-Whitney U test, <sup>‡</sup>Kruskal waillis test

###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문제해결능력은 성별( $t=-.24$ ,  $p=.810$ ), 종교( $t=-.47$ ,  $p=.638$ ), 거주상태( $F=2.30$ ,  $p=.513$ ), 입학 동기( $F=4.04$ ,  $p=.257$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 유무( $t=2.21$ ,  $p=.029$ )와 간호학 전공만족도 여부( $t=-2.04$ ,  $p=.042$ )에 따라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 3.3 대상자의 창의성, 공감역량, 셀프리더십 및 문제해결능력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의 평균 점수는  $3.76\pm 0.58$ 점이었으며, 하부영역의 평균점수는 문제의 명료화가  $3.88\pm 0.64$ 점, 해결방안탐색이  $3.76\pm 0.61$ 점, 의사결정이  $3.74\pm 0.65$ 점, 해결방안수행이  $3.76\pm 0.62$ 점, 평가 및 반영이  $3.65\pm 0.69$ 점으로 나타났다.

창의성의 평균점수는  $3.38\pm 0.56$ 점이었으며, 공감역량의 평균점수는  $3.94\pm 0.56$ 점, 그리고 셀프리더십의 평균점수는  $3.84\pm 0.52$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icreativity, compassionate competence, self leadership & problem solving ability (N=127)

변수	M±SD	측정범위	Cronbach's $\alpha$
문제해결능력	3.76±0.58	1-5	.97
문제명료화	3.88±0.64		
해결방안탐색	3.76±0.61		
의사결정	3.74±0.65		
해결방안수행	3.76±0.62		
평가 및 반영	3.65±0.69		
창의성	3.38±0.56	1-5	.93
공감역량	3.94±0.56	1-5	.95
셀프리더십	3.84±0.52	1-5	.93

### 3.4 대상자의 창의성, 공감역량, 셀프리더십과 문제해결능력의 상관관계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구 변수들이 서로 유의한 양의 상관을 보여 문제해결능력은 창의성이 높을수록 ( $r=.50, p<.001$ ), 공감역량이 높을수록 ( $r=.70, p<.001$ ),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 $r=.79, p<.001$ )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 간 상관관계수 범위는 .34~.79이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of creativity, compassionate competence, self leadership & problem solving ability (N=127)

	공감역량 r(p)	셀프리더십 r(p)	문제해결능력 r(p)
창의성	.34 ( $<.001$ )	.47 ( $<.001$ )	.50 ( $<.001$ )
공감역량		.62 ( $<.001$ )	.70 ( $<.001$ )
셀프리더십			.79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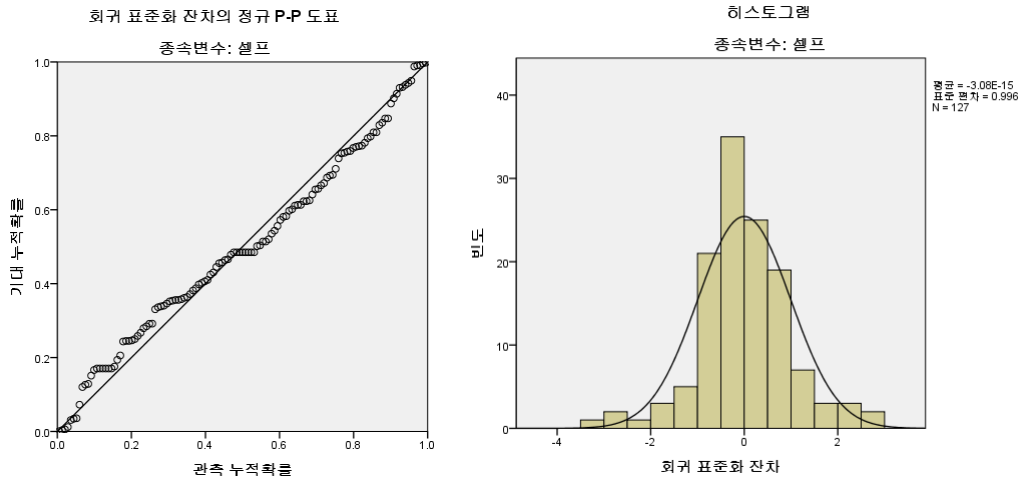
### 3.5 창의성, 공감역량, 셀프리더십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의성, 공감역량, 셀프리더십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았다. 회귀분석의 잔차 산포도, 정규 확률 그래프를 통한 잔차의 정규분포 여부와 선형성, 등분산성을 검정한 결과 잔차는 45도 직선에 근접하며, 잔차의 부분 산점도는 잔차들이 모두 0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Fig. 1). 또한 공차(Tolerance)는 .54~.77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는 최대 1.85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아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은 충족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 $F=98.95, p<.001$ ),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설정계수( $R^2$ )는 .70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셀프리더십 ( $\beta=.52, p<.001$ ), 공감역량 ( $\beta=.33, p<.001$ ), 창의성 ( $\beta=.15, p<.001$ ) 순서로 셀프리더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influencing factors of problem solving ability (N=127)

변수	B	SE	$\beta$	t	p
창의성	.15	.06	.15	2.68	<.001
공감역량	.33	.06	.33	5.25	<.001
셀프리더십	.57	.07	.52	7.77	<.001

$R^2 = .70, F = 98.95, p < .001$



**Fig. 1.** Normality test for multiple regression

####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창의성, 공감역량,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셀프리더십, 공감역량, 창의성이 70.0%의 설명력을 가지고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연구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셀프리더십은 평점  $3.84 \pm 0.52$ 점이며, 문제해결능력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낸 변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문제해결능력이 유의한 양적 상관성을 보인 국내의 선행연구<sup>15,27)</sup>와 리더십이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Carmeli et al<sup>28)</sup>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셀프리더십은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자신을 바람직한 변화로 이끌어가는 사고 및 행동전략으로<sup>20)</sup> 간호사가 지녀야 할 필수 핵심 역량 중의 하나이다. 또한 임상현장에서 간호 수행 및 간호 성과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sup>21,22)</sup>, 간호교육인증평가원이 제시한 학습성과 요소로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직 의도를 낮추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다<sup>29)</sup>. 현재 국내 임상현장에서는 지속적인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학 정원 확대 등으로 간호 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나 압박감 높은 임상현장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으로 사직 및 이직률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양수진 등<sup>18)</sup>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셀프리더십 역량에 대한 요구분석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목표수립, 책임감, 긍정적 사고 등을 제시하였다. 현재 간호대학 교육과정의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이 위와 같은 교육 수요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고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반영한 개선과정을 통해 수요자 요구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적용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과정에 유의한 양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공감역량은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어려움

을 경감시키는데 필요한 간호사 개인의 기술 및 능력<sup>[25]</sup>이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개인의 적응, 학업성취, 역량강화 등 자기성장에 중요한 변인이며<sup>[30]</sup>, 공감역량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sup>[16]</sup>, 공감이 문제해결 능력을 높인다는<sup>[7]</sup>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돌봄 철학을 근간으로 대상자에게 전인 간호를 실천하는 간호사는 질병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대상자의 불편감 즉, 신체뿐 아니라 정서적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감역량은 간호사의 필수적인 자질로 간호대학생이 졸업하기 전부터 습득하고 길러야 할 능력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및 탐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공감역량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임종 간호, 의사소통 간호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공감역량과 문제해결능력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였다. 이러한 국내 연구상황에서 본 연구가 시도한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과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를 파악한 것은 매우 유의미하며, 이를 기점으로 다양한 관련 연구가 시도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찾기 어려워 임상 간호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공감역량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추후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창의성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결과<sup>[6,31]</sup>와 일치하였다. 문제를 해결할 때 기존과는 다른 시점에서 문제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고 전환성의 작용으로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학 전공만족도가 높은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문제해결능력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한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sup>[6,27,32]</sup>. 이는 간호학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간호 전문직관, 자아탄력성, 교우관계 등의 요인<sup>[33]</sup>들을 감안한 학과적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노력은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평균점수가  $3.76 \pm 0.58$ 점으로 상위수준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졸업예정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과정을 측정한 연구<sup>[34]</sup>에서  $3.76 \pm 0.46$ 점으로 보고된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한 김동희 외<sup>[35]</sup>의 연구에서는 1학년이  $3.34 \pm 0.41$  점, 2학년이  $3.40 \pm 0.42$ 점으로, 양성희와 심인옥<sup>[6]</sup>의 연구에서는 2학년이  $3.49 \pm 0.41$  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대상자의 교육과정 이수 시점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위 선행연구에서는 대상자가 간호학 전공교과목을 배우기 시작하는 1, 2학년 인 반면, 본 연구 대상자는 4학년 2학기 재학 중으로 실무중심 통합교육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며 3년 이상의 간호교육과정 이수가 지식수준 및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통해 인증평가시스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간호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선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간호대학생의 창의성, 공감역량, 셀프리더십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셀프리더십, 공감역량, 창의성 순서로 영향을 받았으며, 이 회귀모형은 70.0%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중 결혼 유무와 간호학 전공만족도 여부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의 요구도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셀프리더십, 공감역량, 창의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또한 공감역량과 문제해결 능력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간호교육현장에서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노력으로 간호대학생의 졸업 후 간호핵심역량이 향상되어 임상업무 수행에 잘 적응하고 이직률이 감소하여 임상현장의 효과적인 간호인력수급이 안정화 되기를 기대한다.

## Acknowledgement

※ 이 논문은 2020년도 광주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No. 2020026)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References

1. 한현희, 이미숙, 홍영혜,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액션러닝 교수학습 방법 적용의 효과: 리더십, 문제 해결능력, 일상적 창의성, 비판적사고 성향”,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7-30, 2016.
2. B. Trilling, C. 21st century skills: learning for life in our times, Jossey-Bass, 2009.
3. <http://www.kabone.or.kr/HyAdmin/upload/goodFile/120121127132143.pdf>
4. 이석재, 장유경, 이현남, 박광엽,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연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2003-15-3, 2003.
5. 주영주,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셀프리더십 및 자기효능감의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0권 제4호, pp.745-762, 2020.
6. 양성희, 심인옥,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창의성, 자기효능감과 간호과정 수행능력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5호, pp.612-622, 2016.
7. 김지현, 권경자, 이승희,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제5권 제4호, pp.295-307, 2017.
8. 정은이, “일상적 창의성과 개별성-관계성 및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9. 김영재, CPS 창의 프로그램과 창의적 문제해결, 유원북스, 2014.
10. 이종연, 구양미, 진석연, 서정희, 고범석,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 기반 초등학교 사회과 수업의 효과성 분석 -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제23권 제2호, pp.105-133, 2007.
11. 박현숙, 한지영,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영향요인”, 기본간호학회지 제20권 제4호, pp.438~448, 2013.
12. R. Krznaric, Empathy: Why it matters, and how to get it, Penguin, 2014.
13. 김성일, “청소년을 위한 정의적 공감검사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11호, pp.1-25, 2010.
14. 이가영, 탁영란, “간호사의 공감역량 개념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권 제5호, pp.6561-674, 2019.
15. 박진아,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수준과 영향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8권 제22호, pp.781-798, 2018.
16. 조은희, 김현숙, 황순정,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6권 제3호, pp.290-298, 2020.
17. 안윤정, 임윤서, “여대생의 공감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간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창의력교육학회 창의력교육연구, 제18권 제2호, pp.25~50, 2018.
18. 양수진, 신다혜, 송영수, “대학생 셀프리더십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 분석: H대 대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HRD연구, 제17권 제2호, pp.241-266, 2015.
19. C. C. Manz, H. P. Sims, “The new superleadership: leading others to lead themselves”, Berrett-Koehler, 2001.
20. 송영수, “기업 내 셀프리더십 필요역량 탐색”, 한국인력개발연구(HDR연구), 제13권 제3호, pp.51~74, 2011.
21. 유재연, 이연희, 하이경, “종합병원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직무만족이 간호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융복합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제9권 제10호, pp.28-38, 2019.
22. 조경아, 문숙자,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 매개효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

- 과교육학회, 제19권 제10호, pp.1197-1212, 2019.
23. 이우숙, 박선환, 최은영, “성인의 문제해결과정 측정도구 개발”, 기본간호학회지, 제15권 제4호, pp.548-557, 2008.
  24. 이순목, 이효희, 창의성평가: 검사도구의 이해와 적용, 학지사, 2011.
  25. 이영진, “간호사의 공감역량 측정도구 개발”,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26. 김한성, “중학교교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송실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7. 김지현, 강현임,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및 문제해결능력, 셀프리더십의 관계”,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제18호, pp.435-450, 2017.
  28. A. Carmeli, R. Gelbard, R. Reiter-Palmon, Leadership, creative problem-solving capacity, and creative Performance: the importance of knowledge shar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 52 No. 1, pp.95-121, 2013.
  29. 권상민, 권말숙,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직무몰입 및 임파워먼트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호, pp.152-161, 2019.
  30. 정명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역량강화를 위한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 간 상관관계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 제20권 제2호, pp.332-339, 2013.
  31. 김영숙, 한미영, 김익지, 전민경,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Crisisonomy, 제14권 제5호, pp.91-103, 2018.
  32. 이외선, 노윤구,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및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5권 제12호, pp.349-358, 2017.
  33. 조정애, 김정선,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영향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4호, pp.587-595, 2016.
  34. 김성희, 남현아, 김미옥,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과정 정도 및 아동간호시뮬레이션 기반 임상수행능력”, 한국아동간호학회, 제20권 제4호, pp.294-303, 2014.
  35. 김동희, 박주영, 이내영,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영향요인”, 한국자료분석학회, 제14권 제3호, pp.1551~1563, 2012.